

김민석 총리 인준 오늘 표결...민주 “합의 안되면 단독 처리”

민주 “민생 중심 정치 국힘이 방해...추경과 함께 처리할 것”

국힘 “끝까지 반대 견제”...무고 혐의 맞고 발 법적 다툼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앞둔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촉구하면서도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에게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추경을 방해하는 등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인준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준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로 규정,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3일 본회의 개최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

가 가능하다. 하지만 끝까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첫인사, 특히 총리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게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자당을 고발한 데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인 민주당 김현, 박군택, 박선진,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에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무고·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쫓아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검찰개혁 토론회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과 토론회 주최자인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남 “3·15부정선거 항거 봉기 광주서 전국 최초 시작”

“3·15 의거 개정법률안 발의

광주의 명예 바로 세우겠다”

“3·15부정선거 항거는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봉기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서구을·사진) 국회의원은 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전국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광주’를 명시하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광주 시민들이 마산보다 먼저 부정선거에 맞서 항거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외면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저는 광주의 명예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광주에서 시작된 3·15의거의 진실을 대한민국 역사에 정확히 남기고 싶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했다. 또 관련 법이 ‘마산지역’으로만 규정하면서 ‘광주의 역사적 기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0년 3월 15일 15시 30분경 마산에서 일어난 시민 봉기 이전에 같은 날 12시 45분경 광주시민과 학생 1200여명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국(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했다.

그는 “당시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 장송’ 시위가 진행됐고, 이필호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연행됐으며,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며 “특히 이필호 의원의 부인은 시위 도중 중상을 입고 두 달 뒤 태아와 함께 숨졌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은 이미 광주시와 학계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한 분들의 희생은 너무 오래 가려져 있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광주시민들의 희생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에서는 외면당했다”며 “이제라도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광주와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3·15의거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며, 교육과 역사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광주에서 민주주의가 먼저 시작됐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개정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혁신위원장에 4선 안철수 의원 내정

安 “국힘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

국민의힘의 쇠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 변화에 조용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걷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기용된 것은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 회복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패배에도 혁신 논의가 지지부진한 당내 상황에 대해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데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후 당 쇠신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방송 3법’ 與 주도 법안소위 통과...국힘 불참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력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

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개의해

방송 3법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여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회의를 거부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고 말했다.

민주당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